

파라과이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Republic of Paraguay

2020. 5.

관계부처 합동

I. 파라과이의 중요성

□ 파라과이의 잠재력

파라과이는 남미 심장부에 위치하여 **지정학적 가치가 높으며**, 최근 10년간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향후 성장 가능성 다대

- **(지정학적 가치)** 남미 심장부에 위치하여 브라질 .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3국과 접경하고 있어 높은 지정학적 가치 보유
 - MERCOSUR 정회원국*이며, 현재 협상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타결시 양국간 무역·투자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
 -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이며, 남미인구의 70% 차지
 - 다만, 아르헨티나가 지난 4월 메르코수르 무역협상 불참 선언을 한 상태이나, 나머지 회원국들은 무역협정(TA) 협상 유지 입장
- **(정치·경제 성장)** 지난 2013년부터 콜로라도당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건실한 경제성장 유지*
 - 적극적인 대외 경제개방정책을 통해 국가발전의 기반을 강화하여 남미의 숨은 보석으로서 향후 성장 가능성 더욱 기대
 - * 지난 10년 평균 경제성장률 4.8%

□ 파라과이의 개발협력 수요

- **(거버넌스)** 공공행정기관의 부패 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사법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인해 제도 개선 필요성 다대
 - * 2016년 파라과이 부패인식지수 176개국 중 123위 차지
- **(인적자원개발)** 교육 . 직업훈련 인프라 및 시스템 미비, 고-저소득층간에 교육 격차 심화 등이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
 - * 2017-2018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파라과이의 부적절한 교육 환경 및 시스템이 국가발전의 큰 걸림돌이라 언급
- **(공공서비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빈부 및 지역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 필요
 - * 종합적·체계적 발전계획 부재로 인해 급속한 도시화 및 난개발 진행중

□ 한국 對 파라과이 관계

- (외교관계) '62.6월 수교
- (주요 협정체결) 무역협정('81), 사증면제협정('82), 무상원조 기본협정('11)
- (교역·투자) 최근 3년간 교역규모는 2억불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간 지리적 원거리,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관심도 등으로 대 파라과이 직접투자 규모는 저조한 편

〈 對 파라과이 교역·투자현황 〉

구 분	2015	2016	2017
수출(억 달러)	2.24	1.24	1.46
수입(억 달러)	0.20	1.04	0.99
투자(백만 달러)	1.93	0.99	0.29
ODA(억 달러)	0.12	0.08	0.12

□ 對 파라과이 ODA SWOT 분석(지원시 고려사항)

Strength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타 중남미국에 비해 정치·경제의 안정적 성장 ☑ 남미중심의 지정학적 높은 가치 ☑ 파라과이 정부 요구 분야(전자정부, 대중교통, 도시개발 등)에 대한 우리의 비교우위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일본·EU 등 여타 공여국에 비해 적은 지원 규모 ☑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으로 프로젝트 사업/프로그램 간 연계미흡
Opportunity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비중의 젊은 노동인력 보유로 (35세 이하 70%) 성장동력 다대 ☑ 적극적인 대외 경제개방 정책 유지 ☑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인지도 및 선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관료들의 부정부패, 사법권 불신 환경 등 낮은 투명성 지수 ☑ 지역·계층간 빈부 격차 및 기본 인프라 접근성 미흡

II. 수원국 분석

1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파라과이 정부는 2014년 국가개발계획(EI Plan Nacional de Desarrollo : Paraguay 2030) 발표
 - 헌법 177조에 따라 공공분야에 대해 의무준수 효력을 갖고 있음.
 - 총 12개 세부전략으로 구성
 - 3대 전략목표(Axis) : ▲ 빈곤감축 및 사회개발 ▲ 포용적 경제성장 ▲ 세계로의 편입
 - 4개 범분야 목표(Line) : ▲ 평등한기회 ▲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행정 ▲ 국토개발 ▲ 환경 지속가능성
 - Abdo 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보완하여 공표 예정이었으나, COVID19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기존 국가개발계획을 공식 유지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PND 2030) 세부목표 연계도

국가개발계획 세부전략		범분야 목표(Line)			
		A. 평등한 기회	B.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행정	C. 국토개발	D. 환경지속가능성
전략목표 (Axis)	I. 빈곤감축 및 사회개발	공평한 사회개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포괄적 지방정부로의 발전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거주환경
	II. 포용적 경제성장	취약계층 인적자원 지원 및 사회보장	경쟁력 혁신	생산부문의 지방화 및 다각화	환경자원 활용 통한 경제적 성장
	III. 세계로의 편입	국내외 이주민에 동등한 기회보장	투자유치 및 국가 이미지 향상	지역경제로의 통합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 (SDGs 이행) 2018년 6월 파라과이 정부가 공개한 SDGs 자발적 이행보고서(Informe Nacional Voluntario)는 SDGs 이행을 위한 파라과이의 제도와 17개 목표에 대한 협력 현황 등 포함

-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과 SDGs 목표별 연계성을 분석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정책·제도가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바를 제시 (평가지표 포함)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PND 2030)과 관련 S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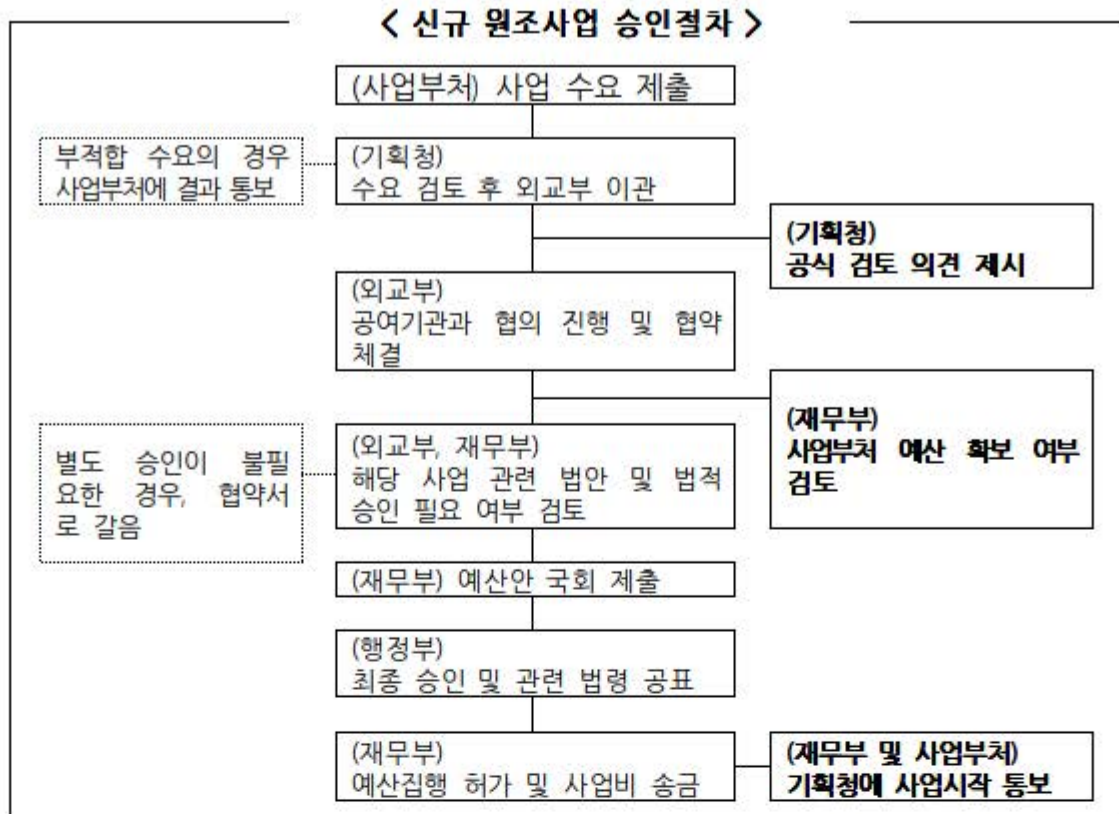
전략목표(Axis)	관련 SDGs	범분야 목표(Line)	관련 SDGs
I. 빈곤감축 및 사회개발	SDG 1,2,3,4,6	A. 평등한 기회	SDG 5
II. 포용적 경제성장	SDG 8, 9, 10, 12	B.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행정	SDG 16
III. 세계로의 편입	SDG 17	C. 국토개발	SDG 11
		D. 환경지속가능성	SDG 7, 13, 14, 15

자료 : Gobierno Nacional de Paraguay(2018). 2019년 CPS 중간평가보고서 발췌

2 수원체계 및 공여국 협력체계

□ 수원 체계

- 파라과이 대외원조 수원정책과 조정을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관은 대통령실로, 사회내각**(Gabinete Social de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GSP),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MRE),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MH) 및 **기획청**(Secretaria Técnica de Planificación, STP) 등 4개 부처가 **무. 유상원조 관련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함.
 - * 외교부(MRE), 재무부(MH) : 원조 관련 정책결정과 관련된 업무 담당
 - * 기획청(STP) : 총괄실무기관으로서 수원계획 수립, 실행, 평가 및 공여국과 수원기관 간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공여기관 및 자금종류에 따라 재무부 및 국회승인 절차 필요



□ 원조 협업 체계

- **(협업체계부재)** 파라과이에는 다수의 공여기관이 활발히 활동중에 있으나, 정부와 원조기관 간 협의체(Grupo de Cooperantes)가 부재함에 따라, 공여국-수원국 및 공여국-공여국 간 협력은 모두 개별 접촉을 통해 진행중임.
- 단, STP측에서 각 공여기관의 원조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원조 정보 웹페이지 ‘공여기관 지도(Mapa de Cooperante)’를 개설했으나, 아직 여러 정보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Ⅲ.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 기본 방향

파라과이 CPS 추진목표

빈곤감축, 불평등 완화 및 경제성장 토대 마련을 통한
파라과이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및 포용적 성장 기여

국가개발계획 2014-2030 (Plan Nacional de Desarrollo Paraguay 2014-2030)

지식경제에 기반을 둔 경쟁력과 남미 최고의 사회개발을 갖춘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복지국가 건설

한국의 지원목표

- ICT 기반 공공행정 경쟁력 제고 및 교육 접근성 강화
- 종합적·체계적 교통체계 구축 지원 및 교통 인프라 향상
- 물 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 및 가족농·소농의 자립역량 강화

중점 분야별 지원 방향

공공행정 분야

-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공공기관 역량 강화
- 디지털 중심 행정관리 시스템 및 제도 개선

교통 분야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시설 구축계획 수립 및 교통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도시의 균형 발전 지원
-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인프라 사업 시행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보건 분야

- 보건의료 시설 개선 및 의료인력 역량 강화
-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경쟁력 강화

지역개발 분야

- 통합적·효율적 도시계획 수립·도시개발 전담 조직 설립 등의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 가족농·소농 대상 농가 소득증대 및 참여적 농촌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 지원 목표

-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PND) 2014-2030’ 제시하는 3대 전략 축인 ▲ 빈곤감축 및 사회개발 ▲ 포용적 경제성장 ▲ 세계로의 편입 노력 체계적으로 지원

□ 중점협력분야별 선정사유

- **(공공행정)** ▲ 공공행정기관 효율성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필요 ▲

* 파라과이는 WEF(World Economic Forum) 국가경쟁력 보고서(2019년) 상의 141개 국가 중 디지털 기술(134위), 부패지수(113위)에서 최하위권

→ 전자정부 등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행정 현대화

- **(교통)** 교통 인프라 수준이 여전히 낙후된 편이며, 관리 역량도 미흡하여 수출과 외자 유치는 물론 지역 간 원활한 이동과 균형발전 어려움

* 파라과이의 교통 인프라 경쟁력은 WEF(World Economic Forum) 국가경쟁력 보고서(2019년) 상의 141개 국가 중 99위로 하위권

→ 지역 간 및 도시 내 이동성·접근성 개선을 통한 운송 물류 시스템 확충 및 효율성 제고

- **(보건)** 보건의료 시설, 의료인력 역량 및 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

→ 보건의료 시설 개선, 의료인력 역량 및 보건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지역개발)** 지역별·도농 간·계층별 개발격차 심화, 도시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 대응과 부족한 주택문제 해소에 대한 국가 우선과제 지원

→ 가족농·소농의 자립역량강화,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 역량 강화

◇ **(중점협력분야 선정기준)**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 및 개발수요, 한국의 비교우위, 상호 호혜적 발전 가능성, 지원 제약요인, 기 지원 사업 성과와의 연계, 타 공여국과의 원조조화 및 분야 간 연계성 등을 고려

◇ **(지원방안)** 파라과이의 개발수요, 우리의 원조역량, 기지원 사업의 원조효과, 타 원조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고려하여 선정, **총 지원 금액의 70%를 집중 지원**

2 분야별 지원방안

(1) 공공행정 분야

□ 한국의 지원 기본방향

- ICT 기반 공공행정(전자정부 등) 분야 지원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9.1)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발
- (SDGs 16.6)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구축
- (SDGs 4.1) 양질의 초·중등 교육을 무료로 모든 어린이들에게 동등하게 제공
- (SDGs 9.5) 연구역량 및 산업기술 고도화

□ 분야별 개발수요

- **(기본목표) 공공행정 개선 (PND 1.2.4)**
 - 종합적 관점에서의 공공행정 현대화
 - 행정 간소화
 - 공공행정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기본목표) 연구, 기술개발, 혁신 (PND 2.2.4)**
 - 교육기회, 인적자본 개발, 사회혁신을 위한 지식 활용 촉진
 - 경쟁력 요소 측면에서 생산적인 분야의 혁신 증대
 - 과학, 기술, 혁신 시스템의 강화 및 사회적 수요와의 연계

파라과이 정부 공공행정 분야 과제*

-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정보 및 행정절차 강화
- ☑국제표준에 맞는 교육의 질 개선(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LEVEL 2 보편화, 평균 LEVEL 3 또는 50점 이상 획득)
- ☑정부 조세수입이 GDP의 18%가 될 수 있도록 징세를 강화하는 주요 경제활동의 양성화를 90% 달성
- ☑정부 공공지출에 3단계(투명성, 부패, 공공정보시스템 활용 지표) 투명성 보장
- ☑통계역량지수 85점 이상 획득을 위한 국가통계시스템 개선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전자정부 구축) ▲ 디지털 중심 행정관리 시스템 신규개발, 통합 및 고도화 ▲ 거버넌스 중심 공공행정 제도개선**
 -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세행정 관리 및 경제 활동 양성화, 신속한 수출입

통관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를 통한 디지털 무역자유화 기여

* 예) 파라과이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및 역량강화

- 국가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 및 제도 개선, 공공정보 확산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기여

* 예) 파라과이 법제화 정보시스템 구축,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2) 교통 분야

□ 한국의 지원 기본방향

- 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지원 및 교통인프라 확충, 인적역량강화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9.1)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발
- (SDGs 11.2)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지속가능한 교통 서비스 제공

□ 분야별 개발수요

- (기본목표) 내·외부 연결성 강화 (PND 2.2.2)
 - 국제적, 상업적 연결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유지보수
 - 국제화물, 승객 등 물류분야 허브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접점 다변화
 - 국경횡단 및 화물이동 개선

파라과이 정부 교통 분야 과제*

- ☑효율적인 복합운송망(도로, 철도, 항공, 선박) 강화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평균 물류비용 감소
- ☑모든 지역에 화물운송 역량 증가
- ☑비교우위·경쟁우위에 따라 선정된 농산물에서 세계 주요 수출국가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률 50% 감소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정책수립 및 역량강화) 항공, 대중교통 등 교통 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및 항공 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추진
 - * 예) 파라과이 신 국제공항 설립 타당성 조사, 파라과이 경전철 구축 타당성조사
 - 도로포장, 교통시스템 등 교통인프라 개발·운영·관리 지원

- 항공 등 교통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교통 운영체계 구축)** 항공, 대중교통 등 교통 분야 정책 이행을 위한 센터 설립 및 운영체계 지원
 - 첨단교통관리센터 및 항공인력 양성센터 구축
 -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항공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시뮬레이터 지원

(3) 보건 분야

□ 한국의 지원 기본방향

-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 K-방역 성공사례 공유·전수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3.1) 모성사망을 감소
- (SDGs 3.2) 5세 미만 및 신생아 사망률 감소
- (SDGs 3.4) 비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

□ 분야별 개발수요

- **(기본목표)** 보건서비스 (PND 1.2.2)
 - 산부인과 및 신생아 관리, 보건인력 교육을 위한 지역 보건소 통합
 - 보건의료전달체계 통합 및 개발
 - 건강 및 삶의 질 개선 프로그램 개발

파라과이 정부 보건 분야 과제*

- ☑ 평균수명 70세 이상으로 증가
- ☑ 비전염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50% 감소(30-70세 해당인구 사망률)
- ☑ 총인구 대비 비만을 50% 감소
- ☑ 인구 10만명 당 자살을 50% 감소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의료체계 및 구성)**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 체계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의료인력 양성

- 지역보건의료체계 등 종합적·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현
 - * 예) 파라과이 보건의료체계 형성 및 일차의료 강화
- 석사학위, 자격증 등 의료인력 중심 인적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보건인프라 구축)** 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일차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보건인프라 확대
 - 대상지역의 보건소 20개 신축 및 개보수, 병원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보건의료체계 하드웨어 구성
 -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 * 파라과이 산빠블로 모자병원 역량강화, 파라과이 노인 보건의료복지센터 건립 및 정책수립
-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적 역량 강화 및 제반 시스템 구축
 - 국가대응계획 수립, 긴급재난본부 설치 등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 * 파라과이 COVID-19 보건 및 경제위기 긴급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 및 이행 프로그램

(4) 지역개발 분야

□ 한국의 지원 기본방향

- 농촌지역 가족농·소농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효율적 도시계획 수립 지원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2.3) 농업생산성 및 소농의 소득 증대
- (SDGs 2.4)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 구축 및 기후변화 복원력 강화
- (SDGs 11.1) 모두에게 안전하고 적절·저렴한 주택 및 기본 서비스 제공
- (SDGs 11.2) 모두에게 안전하고 접근·지속가능한 교통 제공

□ 분야별 개발수요

- **(기본목표)** 농업정책 (PND 2.2.6)
 - 가족농업 및 식량안보 발전

- 가족농 중심 농촌지역사회 경제적·사회적 통합 환경 구축 및 토지 제공

○ **(기본목표)** 주거 및 환경 개발 (PND 1.4.1)

-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의 투자 증가 및 개선
- 지역사회 참여 촉진, 주택 건축 및 거주지 개선에 대한 공동책임

파라과이 정부 지역개발 분야 과제

- ☑농업관개시설을 활용한 생산량 증가 및 생산 변동성 감소
- ☑농목축분야(농업생산성 증대, 목축업·낙농업 경쟁력 강화) 발전
- ☑주택보급을 70% 증가
- ☑식수·위생시설·전기 등 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보편화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농업 가치사슬 구축)** 가족농·소농의 농업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소득 증대, 경쟁력 향상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시범사업 등 현지 농업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농업가치사슬 구축
 - 지역별·품목별 시장·농업환경 정보 등 농업정보 공유시스템 지원
- **(농업 역량강화)** 맞춤형 농업기술 이전, 개발 및 보급, 참여적 농촌 개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 아르헨티나 등 주변 농업강국, 국제기구(농업특화), 현지 농업전문기관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제품·기술 공동연구 수행
 - 저축 기반 비즈니스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들의 의식변화 및 참여적 농촌개발 등 커뮤니티 단위의 활동을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
- **(교육환경 개선)** 차세대 농촌지도자 및 전문 농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 농업학교 등 교육훈련기관 시설 신설·개보수
- **(도시문제 완화)** 급격한 도시화가 야기하는 도시문제 완화
 - 통합적·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도시개발 전담 조직 설립 등의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3 성과점검방안 가이드라인

：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PND) 2014-2030’이 제시하는 3대 전략축인 ▲빈곤감축 및 사회개발 ▲포용적 경제성장 ▲세계로의 편입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

CPS 목표

： 빈곤감축, 불평등 완화 및 경제성장 토대 마련을 통한 파라과이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및 포용적 성장 기여

중점 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제약요인	분야별 성과	성과 지표
공공행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등 ICT 기술 활용한 공공행정 현대화 - (SDGs 1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 ICT 기술 활용한 양질의 교육 및 교육 접근성 제고를 통한 인적자원개발기여 - (SDGs 41) 양질의 유아 교육을 모든 어린이들에게 동등하게 제공 - (SDGs 95) 연구역량 및 산업기술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인 학교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 취약 - 교재 보급률교육 수료율이 낮음 - 교육분야 예산이 GDP 3%로 매우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통관 시스템 고도화 및 역량 강화 - 아동 대상 교육 콘텐츠 제작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 증대율 - 전자정부 활용한 행정처리시간업무 시간 감소율 - 공공서비스 수혜자 수 및 품질 만족도 - 교육 수혜자 수 및 만족도 - 학업능력 성취도 - STEP 분야 전문 인력양성인원 및 취업자 수
교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물류 효율성 개선 - (SDGs 91)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발 - (SDGs 11.2)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지속가능한 교통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인프라 부족 - 안전관리 유지 보수 등 낮은 기술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발전마스터 플랜 수립 - 수도 아순시온 시청에 지능형 교통체계(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도로기술 정책반영도 - 대중교통도로기술 관련 국민 만족도 - 교통분야전문인력 양성인원 및 취업자 수 - 항공기정비량 항공기 정비 운항율
보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비전염성질환 예방관리역량 강화 - (SDGs 31) 모성사망률 감소 - (SDGs 32) 5세미만 및 신생아 사망률 감소 - (SDGs 3.4) 비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시스템 분절화 및 연계협력 부족 - 의료인프라및 전문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프라 확충 - 일차 의료기관 이용자 수 증가 - 비전염성질환(NCD)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분만을 - 전문인력에 의한 출산율산소사망율 - 의료시설대상지 역간강지표(고혈압 유병률 적정 관리율 등) - 교육훈련기관받은 의료진 수 - 의료시설 관련 의료진환자 만족도
중점 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제약요인	분야별 성과	성과 지표
지역개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농·소농의 생산성 및 농업경쟁력 향상 - (SDGs 23) 농업생산성 및 소농의 소득 증대 ○ 경쟁력 있는 생태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뒤쳐진 농업기술 - 농업인프라 열악 - 전문농업인력 부족 - 농업후방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농·소농의 소득 증가 - 글로벌가치사슬과의 연계 - 주민의식변화및 사회적 자본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소득 - 영농훈련 수혜자 수 - 가치사슬 연계사례 - 취약계층 주택보급율 - 수혜자 정주여건

	구현 기반 조성 - (SDGs 11.1) 모두에게 안전하고적절저렴한주택 및 기본서비스 제공	경쟁력 약화 - 도시계획·개발 전문인력 부재	- 수도권종합개발 마스터플랜	만족도
--	----------------------------------------------------------	--------------------------------	--------------------	-----

IV. 이행전략

□ 타 공여기관과의 원조조화

- 현재 파라과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공여국 협의회는 부재하나 다양한 의사소통채널 및 협력방안 별도 구축
 - 공여국 : 양자협의를 통한 사업추진현황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 수원국 : 프로젝트 차원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 * 예) 수원국 시스템 활용을 위해 KOICA-보건복지부 간 4개 보건 프로그램 MOU 체결
- 프로젝트 기반 비교우위를 가진 국제기구·국제 NGO와 협력체계 구축
 - 국제기구 : (지역개발) 미주개발은행(IDB)*, (보건) WHO/PAHO(농업) 미주농업기구(IICA), (조달) UNOPS, (자금집행) 이베로 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EI)
 - * '19년 이후 EDCF-IDB 협조용자(농업, 보건분야 각 1건 既지원)를 통해 파라과이 지원 확대중
 - 국제 NGO : (농업) Fundacion Capital
- 주변 신흥 중진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하기 위한 삼각협력 추진
 - 삼각협력 중점협력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 유·무상 연계 및 무상 간 연계 강화

- 양자차관이 제한적인 주재국 현황을 고려하여 다자채널, 국제기구를 활용한 유무상 연계사업 발굴
 - * 파라과이는 재정적자 비율을 제한하는 책임재정법(Fiscal Responsibility Law)과 보수적인 국가재정운영 방식으로 양허성 차관 수용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임
 - 대한민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도시개발, 산업인프라, 교통, ICT 분야 중심으로 융합사업 공동기획·발굴 등
- 공관 주관 ODA 현지협의체를 통해 주재국 내 관련기관 간 진행사업 정보 공유 및 연계·협업 방안 모색
 - 프로젝트·연수·봉사단 연계 프로그램, ODA 시행기관 간 프로젝트 연계 가능 사업 적극 발굴

□ 민관협력

- 대학, 기업, NGO 등과의 협업 수준 제고를 위해 아카데미·기업협력 프로그램 현지워크숍을 통한 사업자간 교훈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
- 시민사회 사업 지원 및 역량강화 활동 확대
 - 현지 활동 NGO 협의체와의 정례협의 및 지원활동 강화

□ SDGs 기여

- 국제 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도 SDGs를 주류화 하여 수립
 - “Leave No One Behind” 2030 개발의제의 주요 원칙에 따라, ODA 사업 전반에 걸쳐 성평등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증진

〈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

- ① 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성 분석(Gender Analysis)* 실시
 - * 성별에 따른 노동활동 패턴 가정 및 사회내 성별간 관계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정도 등을 조사·분석
- ② 사업 설계 단계에서는 성 분석 결과를 감안, 성과지표 및 사업계획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 * 예 : 여성의 필요를 반영한 목표 삽입, 성별 분리된 목표치 설정
- ③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계획된 성평등 관련 조치의 성실한 이행 및 다양한 관계자와 공유
 - * 계획 외, 가용한 여성 참여수단 지속적 모색 및 활용
- ④ 사업 평가·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산출 및 성과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
 - * 사업의 수혜대상자 및 성과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기술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조실에서 기통보한 ODA 사업의 성 인지적 관점 적용지침^{15.8.24} 참고

VI.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1 모니터링 방안

- **(통합모니터링)** 우리나라 ODA사업 전반의 정보 공유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평가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활용
 -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기관별 예비사업을 공유하여 ODA 사업 발굴 단계부터 사업간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리 진행
 - 수원국 ODA 정책협의회를 통해 ODA 사업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통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리스크 매트릭스)**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가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이를 적극 활용
 - 리스크 매트릭스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작성
 - 시행기관은 명시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시 합동대응

< 리스크 매트릭스 >

위험 요인	대응 방안	모니터링 시기
1. 정치적 불안 상황 발생 (홍당/청당 정권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시 정책지속성과 정치변화요인 분석 ○ 사업과 연계된 정책의 지속성 여부 모니터링 	상황 발생시
2. 정부 비효율 및 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연루사업 발생시 수원국의 처리계획 파악 등 현지조사 ○ 필요시 문제유발자 제재조치 시행 ○ 필요시 자금지출의 지속·중단·재개 등 결정 	상황 발생시
3. 인접국 거시경제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환경변화를 실시간 반영한 원조예산조정 및 적시투입 ○ 필요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 사업진행 상황 집중모니터링(환율변동에 따른 영향 등) 	상황 발생시
4. 자연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지원 검토 ○ 파견인력 안전지침 및 피해상황 모니터링 지침 수립 ○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상황 발생시

- **(평가목적)**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 **(평가시기)** 중간점검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3년경과 후 필요시 진행하며, 종료평가는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실시
- **(평가유형)** 각각의 평가는 중점협력분야별로 목표, 제약요인, 성과, 평가 지표 등을 고려하여 실시
 - **(중간점검)**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변경, CPS 수정 필요사항 발생 등 필요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 **(종료평가)** 국가별로 평가의 중요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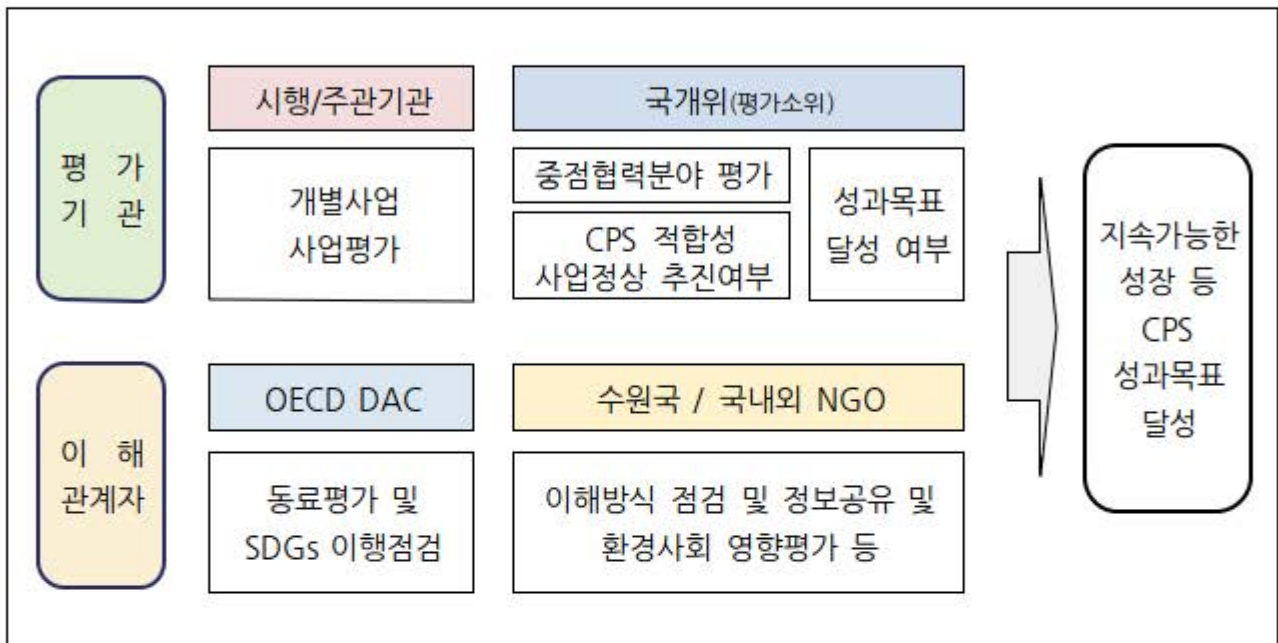
	평가시기	평가주체	비 고
중간점검	CPS 적용 2-3년 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시 CPS 수정
종료평가	CPS 종료 1년 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 CPS 수정 및 재수립

- **(평가내용)** ODA 시행사업, 중점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시행사업)** 사업별 평가는 사업 시행기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되, 가능한 범주 내에서 성과점검방안 가이드라인의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포함
 - **(평가기준)** OECD DAC 5대 평가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및 6대 평가기준(적절성, 일관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되 필요 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

- **(중점협력분야)** 이행점검상 성과지표를 활용한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포함, CPS에 따른 사업발굴 및 이행결과를 점검

〈 평가 절차 도식도 〉



- **(평가환류)**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중간점검, 종료평가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1 원조 성과 평가

□ **(총괄)** 지난 5년(2013-2017)간 약 16개 이상의 부처·기관에서 51.5백만 달러 규모의 원조사업을 추진함(ODA KOREA 통계 참조).

* (참여 부처·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강원도, 경상북도, 교육청, 관세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EDCF) 등

○ 유상원조 사업 해당기간 지원 내역 없었으나, 2019-2020년 동안 농업물류 사업, 코로나19 긴급대응 등 1억불 규모의 사업 승인

〈 한국의 對 파라과이 지원 추이(2013~2017)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무상	집행	8.78	10.76	11.54	8.09	12.35	51.52
	(약정)	16.23	8.14	14.07	27.70	8.59	74.73
유상	집행	-	-	-	-	-	-
	(약정)	-	-	-	-	-	-
계(집행)		8.78	10.76	11.54	8.09	12.35	51.52

자료: OECD.Stat, 총 지출, 2016년 고정가격 기준

○ **(중점분야 지원실적)** 2015-2017년간 對파라과이 중점협력분야에 대한 지원은 총 206억 8,133만원으로 전체 지원의 56.8%를 차지

* 분야별 실적현황 : ▲ 물관리 및 보건위생(20.6%) ▲ 교통(16.1%), ▲ 지역개발(10.5%) ▲ 통신(9.7%) 순으로 나타남

□ 파라과이는 중점협력국으로 2020년 기준, 총 166.05억원(확정액 기준)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체 양자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6% 차지

□ 일 반

- 남미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며 인구는 약 705만명(2018) 수준

□ 정 치

- 2018년 8월 출범한 우파 성향의 Mario Abdo 정부는 전임 Cartes 정부의 주요 정책 노선(친미, 개방경제)을 계승하면서 △부정부패 척결, △교육·보건 인프라 개선 및 사회복지 확대, △마약·국경지역 조직범죄 단속 강화 등을 추진
 - 현 집권당(ANR)이 상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여소야대 의회를 이루고 있고, 여당 내 Abdo 계파(현 대통령지시)와 Cartes 계파(Cartes 전 대통령지시) 간에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집권 초기부터 안정적 국정운영에 난항이 지속
- 한편, 파라과이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확산 억제에 성공을 거두면서 국제 언론으로부터 중남미 지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 받으며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도 회복 기회로 작용
 - 다만,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중국산 방역물품 구매 비리를 비롯해 정부 기관의 잇따른 조달 비리의혹이 불거지면서, Abdo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존재
- 최근 Abdo 대통령은 국정쇄신 노력의 일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을 통해 현 위기 극복을 모색 중
 - ※ 파라과이 재무부는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을 위한 약 3억불 규모 차관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정부예금보증기금, △축산업 진흥기금, △저소득자 주택 건립, △근로자 대상 정부지원금, △취약층 사회복지기금 등 각종 경기부양책 마련중

□ 경 제

- **(경제규모)** 2020년 총 GDP는 428억 달러, 1인당 GDP는 5,905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2018년까지 5년간 평균 4%대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과 달리 2019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출품목의 생산 감소, 주변 지역의 경기 불황 지속 등 당초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0% 성장을 기록
 - 2020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2.6% ~ -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2016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적자 기록(2019년 약 4.4억불 적자 예상)
- **(외환보유액)** 2017년부터 연도별 큰 변동 없이 2019년 약 76.7억불 수준을 유지
- **(외채현황)** 2019년 외채 규모는 약 160억불 수준
 - GDP 대비 총외채비율 : 2018년 38.2% / 2019년 39.7% / 2020년 37.4%
 - ※ 2019년, 2020년 수치는 각각 추정치, 전망치로 작성

〈 파라과이 주요 경제지표 〉

		단 위	2016	2017	2018	2019	2020
국 내 경 제	GDP	억 달러	361	390	419	407	428
	1인당 GDP	달러	5,260	5,610	5,934	5,692	5,905
	경제성장률	%	4.3	5.0	3.7	1.0	-1.0
	재정수지/GDP	%	-0.4	-0.9	-1.3	-0.8	-0.6
	소비자물가상승률	%	4.1	3.6	4.0	3.5	3.7
	정부채무/GDP	%	18.9	19.8	21.5	23.7	22.6
대 외 경 제	환율(달러당, 연중)	Gr	5,680.7	5,630.3	5,721.2	6,233.9	6,543.6
	경상수지	백만 달러	460	-298	-70	-446	412
	경상수지/GDP	%	1.7	-0.8	-0.1	-1.0	1.0
	상품수지	백만 달러	1,242	1,693	675	889	794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6,579	7,333	7,202	7,660	7,710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6,323	16,063	15,984	16,182	15,997
	총외채잔액/GDP	%	45.3	41.2	38.2	39.7	37.4
	단기외채	백만 달러	4,696	4,758	5,394	5,400	-
	외채상환액/총수출	%	13.1	11.2	10.7	12.1	11.7

주: 2019년 수치는 추정치, 2020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계국가편람 2020, World Bank(2020)

- **(국가신용)** OECD는 2008년부터 파라과이 신용등급을 5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 3사 또한 ‘안정(stable)’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Fitch 사는 BB+, Moody’s 사는 Ba1, S&P 사는 BB 등급을 부여

□ 사 회

- **(빈곤감축)** 영양결핍 인구 비율의 감소 등 빈곤 감소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은 24.2%(2018)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
- **(인간개발)** 파라과이의 인간개발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89개국 중 98위(2019)로 인간개발 성취정도는 여전히 높지 않음
- **(균형발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중산층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며, 도농개발 격차도 큼

* 파라과이 지니계수 46.2 / 한국 34.5 (2018)

*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 도시 72.2% 농촌 50.7% (2017)

- **(교육)** 초등교육 총등록율 및 수료율은 준수하며 중등교육 등록률 및 수료율이 2010년 이후 소폭 상승하였으나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공교육 투입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 (교육분야 정부 비율 2016년 기준 GDP 3.44%)

* 초등교육 총등록률 및 수료율 : 102.65%(2010) → 104.37%(2012), 88.55%(2010) → 87.84%(2012)

* 중등교육 총등록률 및 수료율 : 67.68%(2010) → 75.91%(2012), 69.94%(2010) → 73.38%(2012)

- **(보건)** 파라과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대책 시행으로 의료시설 구축도 14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하나, 신생아 사망자수, 모성사망비 등 다른 보건 관련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신생아 사망자 수 : 1,672명 (2015년) → 2,315명 (2020년)

* 간호사 및 조산사 비율(인구 천명당) : 0.70명(2016년) → 1.66명(2018년)

* 기초 식수에 대한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97.26%(2015년) → 99.6%(2017년)

*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 56.90%(2015년) → 58.5%(2017년)

〈 파라과이 주요 사회지표 〉

항목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간개발지수*	0.640	0.667	0.692	0.718	0.718	0.722	0.724	
1인당 GNI (Atlas, 달러)	1,440	1,520	4,070	5,620	5,390	5,390	5,620	5,510
초등학교 총등록율	118.77	110.93	102.65	-	-	-	-	-
초등학교 수료율	99.11	96.56	88.55	-	-	-	-	-
중학교 총등록율	61.51	66.07	67.68	-	-	-	-	-
중학교 수료율(lower secondary)	-	86.44	69.94	-	-	-	-	-
모성사망자(명)	280	240	210	190	190	180	-	-
5세 미만 아동 사망자(명)	4,848	4,181	3,649	3,139	3,057			
기초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75.36	83.28	90.48	97.26	98.57	99.6	-	-
안전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43.62	48.38	52.77	56.90	57.70	58.5	-	-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uman Development Index

자료 : OECD, Stat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9 CPS 중간평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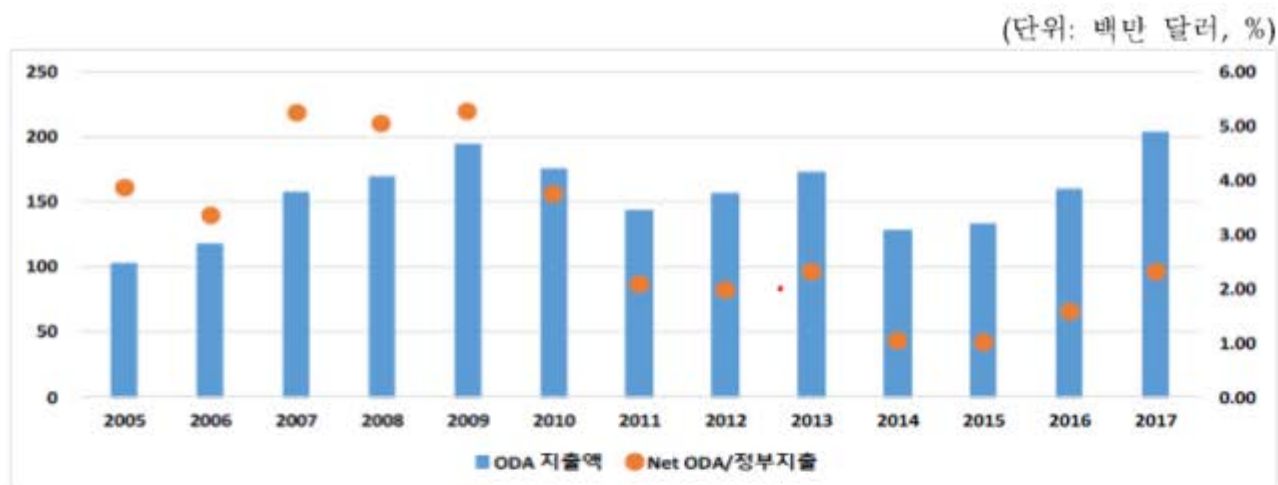
3 수원국 내 공여 활동

□ 수원현황

- 최근 5년간 국제사회의 파라과이 지원 총액은 약 8억 달러이며, 2014년부터 파라과이로 유입되는 원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파라과이에 대한 ODA 지원은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세로 돌아 섰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파라과이 중앙정부지출에서 순 ODA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2009년을 제외한 전기간에 5%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1.03%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ODA 수원액 증가와 함께 정부 지출 대비 순 ODA 비중도 증가

□ 주요 공여기관 활동

- 2013-2017년도 총 지출액 누계 기준, 양자와 다자기구 지원은 4:6 비중을 나타내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이 양자 지원규모를 상회함.
- 주요 공여국은 IDB(28.0%), EU(18.7%), 일본(13.7%), 미국(10.9%), 한국(6.6%) 등임.



주: 1) ODA는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임.

2) Net ODA/정부지출은 정부지출에서 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우리나라는 제 5위 공여국으로 100% 무상원조 형태로 지난 5년간 5,300만 달러 지원함.

< 2013~2017 주요 공여국(기관)의 지원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IDB	77	46	33	29	40	224
EU	18	13	22	42	54	149
일본	23	12	20	31	23	109
미국	13	14	18	19	22	87
한국	9	11	12	8	12	53

주: 총지출, 2015년 실질가격 기준

자료: OECD.Stat을 바탕으로 작성 (2019 CPS 중간평가 보고서 참조)

- (IDB) 주재국 제1위 공여기관으로 2019년 3월 신규 전략 발표 : Paraguay IDB Group Country Strategy 2019-2023

* IDB 신규전략(2019-2023)은 △ 공공행정 및 제도 △ (경제) 통합 및 다양화 △ 생산적이고 복원력 있는 인프라 △ 인적자본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신규 중점분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파라과이의 신규 개발계획에서 강조된 지속가능하고 평등하며 포용적인 사회·경제 발전의 방향성 반영

- (EU) 별도 전략문서는 부재하며 대 파라과이 원조 중점분야는 경제발전, 에너지 관리, 교육·문화·체육 분야 개발임

- * 파라과이 경제통합 지원사업(828만불), 에너지 손실요인 감소 및 아씨레따-비아 아예스 500 KV 송전선 건설사업 (1,300만불), 파라과이 교육분야 정책지원사업 (5,445만불) 등 지원
- **(일본)** 일본의 대 파라과이 ODA 사업은 JIC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59년부터 파라과이에 대한 원조를 계속하고 있음
 - * 국가지원방침(Country Assistance Policy)아래 사회서비스와 빈곤층 수입 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 불평등 개선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중점 분야로 추진중
- **(미국)** ‘파라과이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추구’라는 최상위 목표를 위해 2014년 발표한 국가개발협력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FY 2014-2020)을 2020년까지 적용중
 - * 상기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제도의 관리 및 거버넌스 제도 강화 △ 영세 생산자와 북부지역 취약인구를 고려한 경제적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확대를 중점분야로 추진중
- **(대만)** 비OECD 국가로 통계에 잡히지 않으나 1971년부터 파라과이 원조를 지속해 왔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 건축, 농촌개발, 수산양식산업들을 주요 분야로 지원함.
 - *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 4,500세대 건축사업(7,100만불), 난초 재배/식물 조직 배양 및 모종보급 사업(289만불), 치어 및 파쿠 양식법 교육사업(184만불)